

류영진의 의약품 외교 결실... 베트남 2000억시장 지켰다

(식약처장)

(수출)

베트남 의약품 입찰 2등급 유지
류 처장 베트남 방문해 거둬요청
등급 하락하면 수출 70% 줄어
제약사 불안 해소... 한숨 돌려



류영진 식약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2000억대에 달하는 베트남 의약품 수출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다.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 하락으로 인해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됐으나 베트남 정부에서 국내 의약품의 입찰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덕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등급 유지는 올해 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베트남 정부에 우리나라 의약품의 입찰등급 유지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5월 류영진 식약처장이 직접 베

트남을 방문해 등급 유지를 거둬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유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토대로 등급을 재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내 제약사의 베트남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베트남 정부는 당시 EU GMP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입찰시장에서 1~2등급으로 인정하고, 기존에 2등급으로 인정하던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국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PIC/S 가입국으로 당시만해도 의약품 입찰등급은 2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제약업계에서는 등급이 떨어지면 수출 물량의 70%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

는 우려가 확산했다.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류 처장은 베트남 정부와 2등급 유지를 구두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처장은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서 2등급 유지에 대해 구두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전문을 받지 못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입찰기준 개정은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베트남 정부의 입찰기준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약품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고 이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됐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과정에서 베트남 총리에게 직접 의약품 입찰기준 등급 유지를 요청한 데 이어 류 처장도 베트남을 방문했다. 류 처장은 베트남을 방문해 국제규제화회의(ICH) 회원국이자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으로서 고도의 품질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의약품이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에 공급 입찰 시 2등급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국내 제약사가운데 유럽 GMP 인증을 받았거나 미국 GM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등급에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2등급 경우 개별 제약사별로 직접 베트남 정부(의약품 관리기관)의 GMP 평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해당 등급에 포함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을 PIC/S, ICH 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등급이 높으면 낮은 경우보다 입찰 선정에 유리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베트남 보건부와 협력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내 제약사의 등급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PIC/S 및 ICH 가입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 보건부에 공유하는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이 1등급으로도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제약바이오協 “등급 하향 막은 정부에 감사... 국제적 신뢰도 재확인”

“모범적 민-관 협력 사례로 남을 것”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의약품의 품질과 신뢰도가 재확인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1일 논평을 통해 "협회와 196개 회원사들은 지난해 4월 한국 의약품에 대한 베트남 측의 6등급 하향조정이 불거진 이래 오랜 기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비롯해 역량을 총동원,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익과 국격을 지켜낸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베트남 보건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다 올해 2월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 초안에 의하면 한국 수출 의약품의 입찰등급이 기존 2그룹에서 6그룹으로 하향 조정될 상황에 직면해있었다. 국내 제약산업에 있어 베트남은 의약품 수출 4위국(2017년 기준 2200억원)으로, 입찰 기준이 당초 안대로 하향 조정될 경우 의약품 수출 규모의 급락은 불가피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의 수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협회는 "이에 식약처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베트남을 방문, 관계부처 고위 당국자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등 그간 주무부서인 의약품안전국은 물론 류영진 처장까지 직접 나서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 순방 당시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입장을 밝히시면서 우리 의약품 입찰 등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동안 식약처와 공조하에 베트남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베트남 보건부·제약협회·유관기관 및 현지 관계자 등과 양국 제약산업의 교류협력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세우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며 "류 처장을 비롯한 식약처 당국자들과 외교체널 가동에 협력을 아끼지 않은 국회, 대사관, 코트라 관계자, 협회 내 베트남 TFT,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제약 기업 지사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베트남 의약품 입찰기준 개정

과정에서 우리 의약품의 6등급 추락을 막고 2등급을 지켜낸 것은 국익을 지켜낸 식약처의 탁월한 외교적 성과로, 향후 우리 정부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통상 등 국제적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한 모범적 민-관 협력 사례로 남아 향후 글로벌 이슈 대응시 참조할만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베트남 제약협회와의 미래포럼을 기점으로 양국의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한층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용 기자



여성벤처協,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과 여성벤처 지원 '맞손'

한국여성벤처협회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여성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달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여성벤처기업의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및 정보 상호 교류 ▲연구개발 지원 및 성능평가 ▲개발제품 판로개척 등을 위해 공동협력기로 했다. 여성벤처협회 윤소라 회장(왼쪽)이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윤갑석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메인비즈협회 고객지원 본부장에 김웅 전 광주銀 본부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김웅 전 광주은행 본부장(사진)을 고객지원본부 본부장(상무)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신임 김웅 상무는 30년간 광주은행 근

무 등의 경력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상황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 금융, 기업지원 및 대외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메인비즈기업은 물론 협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김승호 기자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전기레인지

청호나이스 하이브리드 2종 출시

청호나이스는 인덕션 2구와 하이라이트 1구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사진) 2종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기 유도가열방식을 사용한 이들 제품은 열효율이 높으면서도 사용하는 데 안전한 인덕션 2구, 푹배기 등 다양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화구로 구성됐다. 또한 전기레인지 사용 중 최대



전류 초과 시 에너지를 자동 분배하는 에너지 셰어링 기능이 탑재돼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차일드락, 자동꺼짐, 예약타이머 등의 안전장치

로 사고와 화재의 위험을 줄여 안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한국음식에 특화된 팬, 우림, 가열, 보온, 물끓임 등 5가지 세프모드를 갖춰 터치 한번으로 불 조절에서 시간 조절까지 자동으로 설정, 요리 과정이 편리하다.

청호나이스는 제품 출시 기념으로 전기레인지 구매 시 50만원 상당의 독일 브랜드 실리트사의 인덕션 전용 용기 4종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다. 일사불 가격은 B700모델은 159만5000원, F700모델은 198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김승호 기자 bada@

약사 300여 명 초청 ‘지식 공유의 장’ 열어

GC녹십자 ‘GC 파머시 포럼’

GC녹십자가 약사 대상으로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GC녹십자는 최근 서울과 부산, 창원 등에서 지역 약사 300여명을 초청해 'GC 파머시 포럼(GC Pharmacy Forum)'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GC 파머시 포럼'은 특정 질환을 주제로 선정해 저명한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학술 행사다.

회사 측은 제품 홍보에만 그치던 기존 포럼의 형식을 탈피해 질한 별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약국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약사 대상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증'을 주제로 김미정(한양의대재활의학과), 이종화(동아의대 재활의학과), 이주연(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손기호(경성대학교 약학대학) 교



수 등이 '통증'과 관련된 질환과 치료법, 의약품의 특징 등 약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의학정보를 소개했다. /박인용 기자

/박인용 기자